‘국립 승격 20년’ 5·18묘지 새 청사진 그린다

보훈처 발전방안 수립 용역 발주…역사교육장 겸 공원으로 전환
포화 1묘역 확장해 2묘역과 합치는 방안 골자로 대대적 리모델링
향후 4000기 가까운 추가 묘역 필요…설문조사 진행 등 의견 수렴

국가보훈처가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이하 5·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20년을 맞아 새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유공자들이 묻히고 싶어하지 않는 2묘역을 1묘역과 통합하고, 향후 안장될 유공자 수요 등을 고려한 5·18묘지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에 나선 것이다.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5·18의 산 교육장으로 위상과 품격을 높이겠다는 것이 보훈처 방침이어서 향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예상된다.

보훈처 산하 국립5·18민주묘지는 1일 “‘국립5·18민주묘지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수행 업체에 조선대학교 산학협력관이 선정돼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5·18묘지 발전 방안 수립에 나선 이유는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열린 국립묘지로의 발전 필요성 ▲묘지라는 이미지를 넘어선 5·18민주화운동 역사의식 고취와 희생자를 기리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장이자 공원으로의 전환 ▲유공자 수보다 현저히 적은 안장 공간으로 인한 묘역 확충 필요성 때문이다.

보훈처는 용역 발주 배경에 대해 국립5·18민주묘지의 국립묘지 승격(2002년 7월) 20주년을 맞아, 국립묘지로서 위상과 품격을 제고하고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열린 국립묘지로 발전시킬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직접적 계기는 묘지의 수용능력(2000기)보다 유공자가 수가 4000명가량 많고, 2묘역 안장을 꺼리는 5·18민주유공자들의 민원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5800명(고인 포함)이 넘지만 1·2묘역에 안장 가능한 유공자는 이미 매장된 이들까지 포함해 2000기에 불과하다. 또한 제 1묘역은 이미 매장 가능한 공간이 없는데 5·18민주유공자들이 제 2묘역에는 묻히고 싶어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제 2묘역은 재단과 참배시설이 없고 비가 오는 날이면 묘역 일부가 물웅덩이로 변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5·18묘지 참배객들 대부분이 추모탑과 제단 등이 갖춰진 제 1묘역만 방문하는 점도 5·18민주유공자들이 2묘역 안장을 기피하는 이유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유공자들은 2묘역에 안장되거나 추가 묘역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1묘역의 확장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훈처가 받아들이면서 중장기 묘지 발전 방안 수립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보훈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향후 안장될 유공자들의 규모를 파악해 묘역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질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묘역의 토질·투수성 분석 및 지형·지리학적 구조 분석도 진행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와 최종 의사 결정에 따라 매년 5·18 정부 기념식이 열리는 공간에 변화가 되는 등 묘지 전반이 이전과는 크게 다르게 재정비 될 가능성도 있다. 보훈처가 시민사회, 5·18유공자 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리모델링에 나섰다가는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보훈처는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 오월단체와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하는 등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 소장은 “연내 나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투자 계획,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묘지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오월단체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5·18민주화운동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묘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5·18묘지는 1994년 11월 조성공사가 시작됐다. 총 261억원(국비 223억 원, 시비 38억 원)을 들여 1997년 5월 완공됐다. 2002년 7월 국립묘지로 승격된 데 이어, 2006년 ‘국립 5·18민주묘지’로 이름이 변경됐다. 광주 금남로 5·18 광장에서 열린 2020년 40주년 정부기념식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제 1묘역은 9900㎡ 규모로 안장 능력은 782기다. 2011년 1묘역이 포화하면서 도보로 5분 거리의 숭모루와 후문 일원에 2017년 1만 6000㎡ 규모로 2묘역을 조성했다. 2묘역의 수용 규모는 1184기이며, 현재 고인이 된 유공자 153분이 모셔져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성 가득 송편 빚어요 추석을 앞두고 1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주민센터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부녀회원들이 유치원생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공공기관 5·18 교육 미흡

5·18기념재단 실태 조사
전남도·경찰은 관련 교육 없어

광주시청·전남도청·경찰청·교육청 등 지역 공공기관들이 매년 수백 가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은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많아봤자 기관별로 한 두 차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광주·전남지역 공공분야 5·18 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이다. 이들 기관의 최근 2년 교육훈련 과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기관에서 5·18 관련 교육이 미흡했다고 재단은 평가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시교육청은 2개, 광주시는 1개의 5·18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505개 집합·원격 교육 프로그램 중 5·18 관련 교육은 두 개뿐 이었다. ‘호남권(전남·전북·제주)의 역사 교육 공동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었다.

학생들을 상대로는 5·18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에게는 소홀히 한 것이다.

광주시는 직원들에게 38개 직무 교육(공통 과목)을 진행했지만, 5·18 교육 프로그램은 한 개에 불과했다. 과목명은 ‘5·18 광주를 넘어 세계로’ 1개뿐이었다.

광주경찰청은 인권교육은 진행하고 있었으나 5·18 교육 프로그램은 편성돼 있지 않았다.

전남지역 공공기관 5·18교육은 더 미흡했다. 도교육청은 교사 대상 104개 직무연수 중 1개 과목에서만 5·18을 다뤘다.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이었다.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은 5·18 관련 교육이 없었다.

5·18기념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집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지역 공공분야 5·18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생존수영교실 예산 빼돌린 수영연맹 관계자 등 4명 송치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광주시 생존수영 교실 사업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광주시 수영연맹 전·현직 관계자 2명, 남구다목적체육관 관계자, 광주시 체육회 직원이다.

이들은 광주시의 2019년 생존 수영 교실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가운데 10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는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고,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는 축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영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보조금 등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강사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반재신 전 광주시의원이 지난 3월 공개적으로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반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에서 “2019년 생존수영 교실 정산서에는 인건비 37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등 약 5000만원 예산을 들여 시민 320명에게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남구 다목적체육관 등 수업장소에서 실제 수업이 이뤄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업비 흐름도 수상쩍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교통사고로 뒤집어진 차량 시민들 힘 합쳐 운전자 구조

광주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뒤집어진 차량을 힘을 합쳐 일으켜 세워 운전자를 재빨리 구출했다.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교차로에서 모닝 차량이 마주 오던 마세라티 차량과 부딪쳐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각 차량에는 운전자 1명씩만 타고 있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힘을 모아 뒤집어진 모닝 차량을 똑바로 세웠다.

이후 차량 내에서 옴짝달싹 못하던 운전자를 구출해 구조대에 무사히 인계했다.

경찰은 마세라티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며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다 모닝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융 4억가)

2) 월수익 350만(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당진(신축)원룸매매

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융7억)

▶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